

옌저링(嚴歌苓) 소설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 속에 나타난 역사의 기억과 하위주체 연구

朴南用 · 李川珠*

目 录

1. 서론
2. 옌저링의 생애와 작품세계
3. 중국 역사의 기억과 상상
4. 하위주체 여성의 억압과 해방
5. 결론

1. 서론

중국의 난징대학살 사건을 현재화하여 과거의 역사 기억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고 있는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는 오늘날 해외 화인(華人) 작가로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옌저링(嚴歌苓)의 장편소설이다.¹⁾ 옌저링은 근래

*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研究教授 碩士課程

- 1) 옌저링은 현재 해외 화인 작가 중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여성 디아스포라 작가다. 20대 초반에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해, 16편의 장편소설과 50여 편의 중, 단편소설, 극본, 인물전기를 발표하였다. 그 중 많은 작품은 중국과 대만, 미국에서 문학상을 수여 받은 바 있다. 예로 2000년 상하이문학상, 2001년 『시월(十月)』문학상, 2008년에는 『작은 이모 뉘허(小姨多鶴)』이란 작품으로 『당대(當代)』장편소설 5년 최우수상 등이 있다. 또한 옌저링의 작품 중 다수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특히 『천욕(天浴)』(타이완 1998년 영화, 감독은 陳冲, 제35회 타이완 금마장영화제 최우수작품상 및 감독상 수상), 『소녀 샤오위(少女小漁)』(타이완 1995년 영화, 감독은 張艾嘉, 아시아태평양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張藝謀 감독,

들어 세계화문문학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성 디아스포라 소설가이자, 신이민작가로서 매우 주목받으며 이른바 ‘옌저링 열풍(嚴歌苓熱)’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옌저링 열풍’에 대해 중국의 장나(張娜)는 그 현상의 원인을 “이역 여성 화인작가의 중국기억이라는 독특한 이야기 스토리와 평범하면서도 독특한 여성형상을 창조해 내며, 수준 높은 언어적 기교로 창조해 내었다.”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²⁾ 이처럼 그녀의 작품들은 작품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골고루 조명을 받으며, 각종 문학상을 휩쓸며 많은 작품이 영화화되고 있다. 이 작품 또한 2011년 중국의 영화 감독 장이머우(張藝謀)에 의해 영화화 되어 2012년 베를린영화제 공식 초청되기도 하였다. 장이머우는 “『진링 13소녀』는 제 20년 감독 생활을 통틀어 만난 최고의 작품입니다. 마치 진귀한 보물을 얻은 것처럼요.”라고 말하였다.³⁾ 소설 『진링의 13소녀』는 2005년 중편소설로 출간되었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장이머우 감독과의 인연으로 인해 영화로 제작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풍부한 장편소설로 탄생하였다. 옌저링의 이 작품은 1937년 12월 난징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며 수많은 잔혹한 행위를 가할 때의 여성과 기녀, 군인들의 수난사에 대한 아픈 기억의 증언물이다. 옌저링은 새롭게 확보한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난징대학살의 슬픈 기억을 생생하게 담아내었다.

옌저링은 이 소설에서 독특한 인물설정과 서사로 생동한 여성 인물형상들을 창조해냈다. 작품 속의 인물들은 독특한 개성이 잘 표현되어 마치 살아 움직

2011) 등은 유명감독에 의해 영화화 되어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휩쓸기도 했다.

2) 張娜, 「淺析近幾年文學中“嚴歌苓熱”現象的原因」, 『安徽文學』, 第12期, 2010, 277쪽.

3) 옌저링 지음, 김이경 옮김, 『진링의 13소녀』, 문학에디션 빨, 2012, 겉표지 참고. 장이머우의 이 영화와 관련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http://ent.163.com/special/theflowersofwar/> 등에 관련 글들과 사진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를 통해 옌저링 작가와 장이머우 감독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바, 장이머우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옌저링 소설 작품과 관계를 맺으며 다시 그녀의 소설 『육범언식(陸犯焉識)』을 개편하여 영화 『귀래(歸來)』(2014년 5월 개봉예정)를 찍고 있다. 『진링의 13소녀』는 대략 5년간의 심혈을 기울인 대작으로 옌저링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여 리우형(劉恒)의 시나리오 각색을 통해 이루어졌다. 크리스천 베일(克里斯蒂安·貝爾), 니니(倪妮), 퉁다웨이(佟大為), 장윈이(張歆怡) 주연으로 2011년 12월 15일 개봉되었다.

직이는 듯한 리얼리티를 선사한다. 이런 여성 형상은 중국의 과거 역사문화의 산물이자 기억물이다. 작가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토대로 풍부한 상상력을 더하여 전쟁 트라우마, 국가와 민족의 운명,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심장한 작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작품은 동서양 문화 혼종성의 잠재와 함께 독특한 서사와 생동한 필치로 뛰어난 예술적인 힘을 발산하고 있다. 옌저링은 자신의 작품에서 ‘서발턴⁴⁾(subaltern, 하위주체)’여성들의 목소리, 경험, 역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여성과 모성의 기저에서 출발하여 인간 내면의 빛나는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옌저링이 창조한 주인공은 거의가 처절한 고통과 절망의 나락에 처한 여인들이다. 그녀들의 근원적이고 뿌리 깊은 상처는 결국 국가와 민족, 역사에서 기인한 불가항력적인 것들이기도 하다. 소설 『진링의 13소녀』는 독특한 서사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소설의 시점은 1인칭과 3인칭을 교차하여 쓰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사기법과 방언을 동원하여 스토리 전개에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옌저링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조명하며, 『진링의 13소녀』에 나타난 각종의 역사의 기억과 역사의 문학적 상상의 관계를 분석하며, 문학이 어떻게 과거 역사와 조우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성 형상들-특히 기녀와 소녀들, 즉 하위주체 여성의 억압과 해방을 중심으로 어떻게 당대 사회와 소통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기로 한다. 본고를 통하여 중국인 디아스포라 여성 지식인으로서 국가, 민족과 개인의 역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서술 관점과 아울러 하위주체로서의 여성형상을 통한 여성 의식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⁵⁾

4) 서발턴은 일반적으로 영국 군대의 하급 장교를 의미한다. 그러나 스피박이 ‘서발턴’을 정의할 때 참조한 가장 중요한 지적 출처는 20세기 초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와 주로 인도에 근거를 둔 서발턴 연구집단의 작업이다. 그람시는 ‘폐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을 나타내는 말로 서발턴이라는 용어를 ‘하급자’ 혹은 ‘조력자’와 바꿔서 썼다. 스티븐 모튼 지음, 이운경 옮김, 『스피박 넘기』, 도서출판 엘피, 2005, p24.

5)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옌저링을 화예작가(華裔作家)로 규정하며 화문문학(華文文學)이나 화인문학(華人文學)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국의 우민(吳敏)은 석사

2. 엔저링의 생애와 작품세계

엔저링은 1957년 11월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1987년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미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다. 물론 외교관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와 타이베이, 베를린 등 세계 각지를 체험하며 중국인 작가로서 세계적인 시야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엔저링의 생활을 통해 볼 때 그녀를 우리는 이민 작가 또는 디아스포라 작가로 명명할 수 있는 만큼 그녀의 문학창작 속에서는 과거 중국에서의 극본이나 소설 창작, 미국에서의 이민제재나 중국 고향을 돌아보는 창작, 최근의 중국 이야기나 역사를 돌아보는 창작 등 다양한 문학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엔저링의 소설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녀의 생애와 창작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엔저링은 1957년 중국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작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문학예술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다. 부모를 따라 안후이성에서 자라났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오페라 배우였고, 아버지 엔둔쑤(嚴敦勛)은 안후이성 문련(文聯)의 전업작가였다.⁶⁾ 그녀는 1971년 12세에 부대에 들어가 부대의 문공단(文工團)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며 창작을 배우면서 약 15년간의 군대생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후 20세 때에는 베트남 전선에 중군기자로 나가 활동하며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생명존중의식을 가지며 문학창작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1980년에 공개적으로 작품을 발표하며 그녀가 쓴 『가사 없는 노래(無詞的歌)』는 1982년 상하이 영화제작소의 찍은 『심현(心弦)』으로 촬영되며 이후 창작활동에 매진하였다. 1981년에는 첫 번째 소설 『과

학위논문 「跨文化書寫: 嚴歌苓新移民小說研究」(華中師範大學, 2013) 처럼 ‘신이민’ 작가와 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엔저링을 북미 화문문단에서 가장 실력 있고 영향력 있는 신이민작가로 규정하며, 신이민적 정체성과 동서 문화를 초월하는 트랜스내셔널리즘적 문화 서사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6) 吳敏, 「跨文化書寫: 嚴歌苓新移民小說研究」,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1쪽.

『(葱)』를 창작하였으며, 1986년에는 중국작가협회에 가입하며 장편소설 『녹혈(綠血)』, 『한 여자병사의 귓속말(一個女兵的悄悄話)』, 『자성의 대지(雌性的土地)』등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그녀가 10여 년에 이르는 군부대 생활을 소재로 하여 쓴 ‘군제재 3부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여자병사의 귓속말』은 “강렬한 개인화 경향을 표현하며, 시대의 황당함과 인간성을 억압하는 것을 표현하며 창작의 길로 걸어나간 원인을 보여주었고”, 『자성의 대지』는 “남녀의 성차별에서 출발하여 ‘자연의식’과 한 때 유행했던 ‘사회의식’과 서로 대항하며,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강조하며 허구적인 혁명과 허구적인 남녀평등의 황당함을 보여주었다.”⁷⁾ 대체적으로 이 시기 작품들은 주로 정치에 대한 순응과 충돌, 이성과 가족 사랑에 대한 갈망과 억압이 공존하고 있으며,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대한 억압과 분출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

1989년, 미국 유학의 길을 오르며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밟으며, 본격적으로 창작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그녀는 외교관 출신 미국인 로렌스와 결혼하며, 1995년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004년까지 남편을 따라 아프리카에서 살았다. 이 시기는 그녀가 미국에서 소설 창작의 서양 이론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며 이민제재 소설을 창작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신분의 변화, 문화의 차이에서 느끼는 소외감, 이국에서의 견문을 토대로 수많은 작품을 썼다. 옌저링은 이 기간의 생활경험을 마치 한 생명의 이식과도 같은 것이라고 형상화하여 표현하였다. 한 생명이 새로운 토양에 옮겨져 새롭게 생명력을 얻기까지 순간순간 느끼는 불안과 당혹, 상처와 고통, 신비로움과 희열은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이 시기의 대표작으로는 『소년 샤오위(少女小漁)』, 『부상(扶桑)』(1996), 『연의 노래(風箏歌)』, 『여자 집주인(女房東)』, 『데이트(約會)』가 있다. 모두가 해외 체류자들의 고달픔과 애환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품들이다.

7) 丁婕, 「近十年嚴歌苓小說研究綜述」, 『新陽農業高等專科學校學報』, 第19卷 第3期, 2009, 75쪽.

옌저링은 먼 이국 땅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문화대혁명’을 직시하게 되었고 새로운 이론과 창작방식으로 『천욕(天浴)』, 『인간세상(人寰)』(1998), 『백사(白蛇)』 등 작품을 썼다. 근년에는 『아홉번째 과부(第九個寡婦)』, 『한 여인의 서사시(一個女人的史詩)』, 『작은이모 뉘허(小姨多鶴)』, 『진링의 13소녀』(『小說月報』, 2005) 등과 같은 이른바 ‘중국기억’의 디아스포라 문학을 창작하였다. 이 시기의 소설에 대해 천쓰허(陳思和)는 옌저링의 『부상』과 『인간세상』을 논하며, 소설 기교면에서 ‘치밀함(精緻)’에서 ‘대범함(大氣)’으로 나아갔으며, 그녀의 창작 중의 성과를 장편소설에서 찾고 있다. 또한 예술적으로 서정성으로 구체적인 묘사를 대체하며 소설 구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⁸⁾ 옌저링은 지리적, 시간적, 언어문화적 거리를 두고 바라 볼 때 가까이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무엇을 발견할 수 있었고 역사의식의 깊은 깨달음을 보여주고 있다. 옌저링은 ‘바깥’에서 ‘타자성’을 경험하는 동시에 중국의 관습과 규범을 경계인, 혹은 이방인의 의식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았던 것이다. 디아스포라 문학은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만 하나의 공통된 의식은 바로 ‘노스탤지어’라고 할 수 있는 상실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이다. 디아스포라 문학에 공통되게 드리워진 ‘이중 정체성’은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바로 경계인이자 이방인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표식이다. ‘이중 정체성, 부재하는 정체성, 반 정체성’으로서의 자의식은 끊임없이 온전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조국과 고향을 염원하게 만든다. 디아스포라 문학이 세계 문학의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노스탤지어와 ‘이방인’의식에 의해서다.

이와 같이 옌저링의 소설창작은 1990년대부터 201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용수에서 종군기자로, 외국 유학생에서 국제결혼 이민자로 정착하며 풍부한 인생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옌저링의 여러 작품은 다양한 문학상을 받으면서 현재 중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

8) 陳思和, 「嚴家蓉從精緻走向大氣」, 莊園 編, 『女作家嚴家蓉文學研究』, 汕頭大學出版社, 2006, 21-29쪽 참고.

다. 역사적 시각에서 다양한 여성형상을 창조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옌저링은 자신의 작품에서 특유의 섬세함과 절제된 묘사로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작품 연구도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며 약 소논문이 80여편, 석박사논문이 150여편⁹⁾ 등이 있다.¹⁰⁾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옌저링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찾아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한중일 간에 첨예한 역사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역사 기억과 단절, 망각 등의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한다.

3. 중국 역사의 기억과 상상

옌저링의 이 작품은 중국 난징대학살에 대한 역사의 기억이자 상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일본의 식민 지배의 경험과 전쟁역사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며 과거의 역사가 망각되어 가는 기억의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재일 디아스포라¹¹⁾ 지식인 서경식의 표현을 빌어보자면, “기억하고 증언하는

9) 吳敏, 「跨文化書寫: 嚴歌苓新移民小說研究」, 華中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2013, 4쪽.
 10) 옌저링의 작품연구의 대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의 옌저링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4부류로 나뉜다. ①해외화인문학연구, 즉 이민문학연구의 관점에서 이민문학에 기여한 성과에 대한 연구. ②동서양 문화갈등의 관점에서 작품 속에 내재한 의미에 대한 분석. ③작품 서사의 독특한 예술성에 대한 연구. ④여성주의 관점에서 작품의 인물형상에 대한 분석 연구 등이다. 최근 10년간의 옌저링 소설 연구에 대해서는 丁婕의 「近十年嚴歌苓小說研究綜述」(『新陽農業高等專科學校學報』, 第19卷 第3期, 2009)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옌저링의 소설연구를 미국 출국 전후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으며, 옌저링 도미 이후에 대한 연구 상황을 비평방법의 다양화, 종합적 분석과 비교적 연구의 확대, 약점과 돌파점 등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05년에는 산터우대학(汕頭大學)출판사에서 청년학자 쑹위엔(莊園)의 주편으로 『女作家嚴歌苓研究』등이 출판되었다. 이 책은 名家點評, 作品研究, 作家自敘, 作家側記, 作家訪談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되며 대륙, 홍콩, 타이완, 미국 학자들의 옌저링 소설 연구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11) 디아스포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Diaspora'를 써서 “팔레스타인 또는 근대 이스라엘 밖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디

것은 평화와 인간성을 위한 싸움이다. 어떤 곤란이 있더라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것이 ‘단절의 증언자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다.”¹²⁾ 비록 과거의 슬픈 역사의 기억일지라도 새로운 평화와 인간성 상실을 회복하기 위해 지나간 역사를 올바르게 보고자 하는 작가의 시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즉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한 기억의 장으로서의 엔저링 소설은 과거의 아픈 역사의 기억과 역사의 상상으로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의 소설 자체가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이자 현재의 망각을 거부하기 위한 하나의 증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경식의 표현처럼, “기억하는 것은 평화를 위한 싸움이다”¹³⁾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과거 잔혹한 식민 지배와 전쟁 경험에 대해 오늘날 일본 정부의 태도는 매우 이중적이다. 동아시아 각국과의 대화를 희망하면서도 신사참배와 망언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의 책임에 대해 집단적으로 부인하며 중국인들의 민족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와 전쟁 당시에 행했던 수많은 잔혹한 만행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볼 때 엔저링의 이 소설은 또다른 역사의 기억이자 증언으로서의 귀중한 가치를 갖게 된다. 그것은 특히 전쟁 당시 ‘위안부’ 여성에 대한 부인 내지 왜곡을 통해 일본의 ‘죄’와 ‘책임’이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1990년대 중반 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를 통해 볼 때 서경식의 견해처럼 ‘집단적 죄’와 ‘국민적 책임’ 문제를 혼동하고 있어 보인다. 서경식은 “죄가 없더라도 책임은 있는 것이다. ‘위안부’ 제도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정부를 택한 국민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바꾸도록

아스포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이 용어는 “유대인의 경험뿐 아니라 다른 민족들의 국제 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 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윤인진, 『코리아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5쪽. 디아스포라 문학이란 자신의 기원인 민족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 ‘바깥’에 거주하는 이산인의 문학을 일컫는 말이다. 정은경,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11쪽.

12) 서경식, 『디아스포라의 눈』, 한겨레출판, 2012, 46쪽.

13) 서경식, 『디아스포라의 눈』, 한겨레출판, 2012, 43쪽.

만들지 않으면 국가범죄는 언제까지라도 계속될 것이기에.”라고 하였다. 일본의 중국 침략의 한 장면을 보여주며 난징대학살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역사의 기억과 증언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옌거링의 『진링의 13소녀』는 작가가 역사를 기억하고 상상하고 재구성하며 과거 역사의 문제를 어떻게 현재화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소설은 고통과 기억의 감수성으로 역사 기억의 길을 새롭게 내고 있다. 즉 단절된 기억을 다시 복원하며 역사의 망각을 거부해 나가려는 현재에 대한 기억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난징이 함락되던 1937년 12월 13일부터 21일까지의 약 7일간의 이야기 서술시간 속에서 전개되고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의 실제적인 시간은 난징대학살이 있던 후부터, 1946년 8월, 난징에서 열렸던 일본 전범들에 대한 재판 증언과 작중 화자인 이모 명수취안(孟書娟) 이 조카인 ‘내’가 29살이 되어 13명의 친화이 강가의 여인들의 행적을 조사 완료하는 시점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진링의 13소녀(金陵十三釵는 청나라 때의 고전소설인 『홍루몽(紅樓夢)』 金陵十二釵 에서 따온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슬픈 운명의 여인들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 작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주인공들의 삶 또한 임대옥(林黛玉) 薛寶釵 같은 인물처럼 불행으로 막을 내린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13’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에서도 이 작품의 비극적인 운명을 유추해 낼 수 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가룟 유다의 배신을 연상시킨다. 이 소설 속에서는 14명의 기녀들과 16명의 여학생들이 등장하지만 기녀 더우커우(豆蔻) 徐小愚 와 2명의 친구가 성당을 떠나면서 모두 13명으로 같아진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난징 함락의 역사적 비극의 그날, 13세 나이에 수취안이 초경을 겪듯이 아픔과 고통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또한 “‘13’이라는 숫자는 소설 속 인물들의 개인적 아픔이자 고통일 수도, 난징의 비극일 수도, 그리고 중국의 비극일 수도, 혹은 전 인류의 비극일 수도, 아니 어쩌면 이 모든 비극과 아픔의 총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¹⁴⁾ 옌거

링은 『진링의 13소녀』소설창작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다.

“이국에 사노라면 민족 ‘자아의식’이 늘 들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중국인과 다른 민족간의 모든 이야기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진링의 13소녀』는 바로 그런 심리상태 속에서 썼습니다. 오랫동안 꼭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죠...”¹⁵⁾

이 작품은 1937년 12월 겨울, 일본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고 난징을 손아귀에 넣으면서 대학살을 감행하던 시기의 한 천주교 성당을 무대로 삼고 있다. 특히 성당에서 살아나온 당시 13세 소녀 ‘명수취안’의 조카가, 이모 ‘명수취안’의 회고를 통하여 추리하는 형식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이모의 당시 사건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 조사와 국제전범 재판장에서 만난 자오위모(趙玉墨 증언, 그리고 조카인 ‘나’의 상상력을 통한 역사의 재구성으로 시작된다.

“명수취안(孟書娟 이모는 어떤 한 사람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를 찾고 있었다. 그 여자를 찾다 보니 이모는 점점 늙어버렸고 결혼이라는 인륜지대사도 잊어버렸다. 내가 이모와 대화가 될 정도로 자라셔야 나는 이모가 평생을 찾아 헤맨 여자가 기녀라는 걸 알게 되었다. (생략) 1946년 8월, 난징에서 열렸던 일본 전범(戰犯 들에 대한 재판에서 이모는 그녀를 거의 찾을 뻔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서 사건에 모의된 일본 고위군관의 대규모 강간을 증언하고 있었다.”¹⁶⁾

14) 엔거링 지음, 김이경 옮김, 『진링의 13소녀』, 문학에디션 뿔, 2012, 321쪽.

15) “人在異邦，會產生一種對自己種族的‘自我意識’，這種對族群的‘自我意識’使我對中國人與其他民族之間的一切故事都非常敏感。『金陵十三釵』就是這種心態下的產物，是一篇長久以來認為非寫不可的作品。”嚴歌苓，「悲慘而絢爛的犧牲」，『人民文學』，2011. 4, 69쪽.

16) “我的姨媽孟書娟一直在找一個人。準確地說，在找一個女人。找着找着，她漸漸老了，婚嫁大事都讓她找忘了。等我長到可以做她談手的年齡，我發現姨媽找了一輩子的女人是個妓女。(省略)一九四六年八月，在南京舉行的對日本戰犯的審判大會上，我老姨幾乎找到了她。她坐在證人席上，指認日軍高級軍官的一次有豫謀的，大規模的強姦。嚴歌苓著，『金陵十三釵』，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2011, 1쪽. 본고에서의 본문 인용 문은 국내에서 번역출판된 『진링의 13소녀』를 참고하였다.

작품 첫머리부터 시작하여 이 소설의 이야기는 난징대학살 당시 수취안이 겪었던 일로부터 그녀를 대신 구원해 준 기녀 자오위모에 대한 증언으로부터 전개된다. 난징대학살을 다룬 아이리스 장의 책 영문제목이 ‘The Rape of Nanking’라고 하는 것처럼 직역하자면 ‘난징의 강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군인들에 의한 강제적인 강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 여인들을 군 위안부로 삼아 온갖 만행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일본의 직접적인 전쟁 만행 장면을 고발하기보다는 비교적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약 7일간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겪는 여학생들과 기녀들, 그리고 부상당한 중국 군인들, 그리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잉글먼 신부와 밥 신부 등의 대화 장면을 객관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특히 13살 된 소녀의 시각 속에 비친 전쟁의 모습을 서술하여 전쟁의 참혹한 집단기억과 오랜 정신적 외상 기억을 다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조카인 ‘나’의 상상을 통해 이야기를 재구성해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취안 이모가 위모와 다이타오(戴濤) 사이에 오간 대화를 알 방법이 없었으니, 나의 생각대로 이 공백을 메우는 수밖에 없다.”¹⁷⁾고 하거나, “내가 읽은 건 이모가 성숙된 문장으로 다시 쓴 기록이었다. 나는 이모 같은 역사학 문호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서, 이러한 기록을 보면 소설적인 사고로 상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이제 내 상상력에 의지해 소설적인 문장으로 사건을 복원해보기로 하겠다.”¹⁸⁾라고 하였다. 이처럼 이 소설의 내러티브의 전개방식은 수취안 이모가 들려준 난징대학살에 대한 이야기와 조카인 ‘나’의 상상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전개방식은 난징대학살의 처참함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이야기의 진실성을 확보하며 소설을 읽은 독자도 하여금 깊은 마음의 울림을 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17) 既然我姨媽書娟無法知道玉墨和戴濤的談話，我只好憑想來填補這段空白。嚴歌苓 著，위의 책, 104쪽.

18) 我姨媽孟書娟在脫臉後把它記錄下來。多年後，她又重寫了一遍。我讀到的，是她以成熟的文字重寫的記述。我畢竟不是我姨媽那樣的史學文豪，我是個寫小說的，讀到這樣的記載就控制不住地要用小說的思維去想像它。現在，我根據我的想像以小說文字把事件還原。嚴歌苓 著，위의 책, 196쪽.

또한 이 소설에서 난징대학살에 대한 집단기억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윌슨성당의 미국인 신부 잉글먼(英格曼 法比·我多那多) 신부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 작품에서 두 신부의 인물형상은 이 소설의 객관적인 역사 사실을 더욱 객관적으로 묘사하며 일본군의 만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신부를 통하여 동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간 상호간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잉글먼 신부는 “아까의 총성은 바로 강변의 형장에서 들렸어. 일본의 자국 기자들과 독일인들마저 모두 경악하고 있군.”¹⁹⁾이라고 말했으며, 일본군이 그렇게 잔인하게 군인들을 죽이고 밥에게 말하길, “일본은 국제포로 법규도 무시한 채 문명과 인간의 도리에 도전하는 걸까? 믿을 수 있겠나? 이게 내가 아는 일본국의 사람이 맞는가?”²⁰⁾라고 묻고 있다. 윌슨성당에 들어온 중국 군인들을 무장해제시키며 가능한 중립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여학생들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미국 신부의 말 속에서 과거의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이 사라지고 만다. 이에 비해 밥 신부는 선교사 부모의 죽음 속에 서양인의 얼굴을 하고 중국 장베이(江北 농촌에서 자라나 잉글먼 신부의 신학생이 되어 신부가 되었다. 하지만 잉글먼 신부와 밥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영원한 중국인도 될 수 없었고 잉글먼 신부와도 더 이상의 관계 진전은 없었다. 그래서 잉글먼 신부는 밥이 중국인의 ‘소극적 공격성’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논쟁하고 반박하기를 요구하였다. 잉글먼 신부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인간 상호간의 소통을 꿈꾸었지만 둘의 입장은 너무 달랐다.

“밥의 침실은 도서관의 또 다른 쪽이었다. 그 시각까지 밥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웬지 모르지만 잉글먼 신부와 밥은 소통하고자 하는 충동이 늘 어긋나기만 했다. 밥이 그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면 그는 때마침 고독을 즐기고 싶을 때였고, 그가 고독 속에서 빠져나와 밥과 대화를

19) 剛才的槍聲就是發自江邊刑場。連日本本國的記者和德國人都對此震驚。嚴歌苓 著, 위의 책, 58쪽.

20) 日本竟然無視國際戰俘法規, 挑畔文明和人道? 你能相信嗎? 這是不是我認識的那個日本國的人? 嚴歌苓 著, 위의 책, 59쪽.

하고 싶을 때면 밥이 열의가 없거나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잉글먼 신부는 슬프게 결론 내렸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그와 밥처럼 멀어지지도 못하고 가까워지지도 못한다고.”²¹⁾

이러한 두 신부의 내면세계 속에 항상 고독과 외로움이 있었지만 서로 소통하지 못하는 단절된 인간 관계를 드러내 주고 있다. 그래서 밥은 20년을 함께 산 잉글먼 신부처럼 서양인들이 마시는 와인이나 브랜디, 위스키가 입에 맞지 않았고, 중국 농부처럼 누룩으로 빚은 뜨거운 바이주(白酒)를 마시며 말린 두부 몇 점, 소금에 절인 오리알 반쪽, 아니면 납작하게 말린 오리날개 한 쌍 같은 술안주를 먹을 뿐이었다. 하지만 다이타오가 찾아와 무기를 내어달라고 할 때 중국인들과 거리를 두며 완벽하게 미국식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때 다이 소령은 밥 신부를 죽이고 싶은 욕망 속에 “중국이 당한 100여 년간의 치욕도 이 서양놈들과 밀접한 상관이 있건만, 저들도 일본놈들이랑 똑같이 중국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고 원망했지만, 그를 결국 “언어의 경계, 종족의 경계,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소멸시켰고, 그는 분노에서 기쁨으로, 그리고 다시 도취감으로 이끌더니 마침내 현실을 초월한 경계로 이끌었다.”²²⁾ 이와 같이 잉글먼 신부와 밥 신부, 밥 신부와 다이 소령 등은 성당의 어린 여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인간 관계의 단절에서 벗어나 상호간의 소통을 지향하며 “타인을 구함으로써 스스로를 구제하라(拯救他人、拯救自己)”는 진실한 인생의 깨우침을 주고받게 된다.

『진령의 13소녀』에서 전쟁과 침략자는 하나의 배경일 뿐이다. 소설에서 일본군에 대해 어느 누구도 구체적인 이름을 쓰고 있지 않다. ‘일본 병사’, ‘군

21) 法比的臥室在圖書館另一邊。這是法比仍沒有回來。不知爲什麼，他跟法比的交流衝動總是錯位，法比來跟他談話時，他恰恰在享受孤寂，而他從孤寂中出來，渴望跟法比交談時，法比或是敷衍，或者根本不見踪影。英格曼神甫悲哀地總結，世上人大概都像他和法比，離不開又合不拢。嚴歌苓 著，위의 책，123쪽.

22) 中國一百多年的屈辱，跟這些西洋鬼子密切相關，他們和日本鬼子一樣不拿中國人當人。(생략) 嗓音消除了語言的界限、種族的界限、人畜的界限，這嗓音使他從憤怒到愉悅，再到陶醉，最終達到一種出神入化的境界… 嚴歌苓 著，위의 책，144쪽.

관', '중좌', '소좌'로 등장할 뿐이다. 침략자에게는 '병사'만 있을 뿐, 직함만 있을 뿐, 누구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는 '인간'은 없음을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죄악이 판을 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은 이미 이성과 도덕성을 다 잃은 모습으로 비쳐진다.

잉글먼 신부가 급히 소좌 앞으로 다가갔다.

“다시 한 번 경고하겠습니다. 여긴 미국 땅이요. 당신이 미국 구역내에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이고, 멋대로 무고한 피난민들을 잡아가고 난 다음에 벌어질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았소?”

“우리의 상관이 어떻게 책임을 벗어날지 아나? 이렇게 말할 테지. 그건 단지 군대의 개인이 제어하지 못해 벌어진 행동일 뿐이다. 이미 이들 개인에 대해 군법 처벌을 내렸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이들의 ‘개인행동’을 추궁하지 않지. 알겠나, 신부? 전쟁 중에 제어하지 못하는 행동은 매초마다 발생하는 법이다.”

소좌가 유창하게 말을 마쳤고, 통역이 다시 유창하게 읊었다.

잉글먼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이처럼 모든 죄행을 잡아떼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23)

위의 예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본 군인들의 전쟁의 책임에 대해 느끼는 장면이다. 그들은 이미 국가의 폭력 도구로, 그저 물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은 ‘단번에 수십명의 중국인들의 머리를 자르고’, 수천명의 전쟁포로를 사살하였으며 심지어 한 소녀를 놓고 ‘앞가리개만 걸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는’ 그들은 죄악과 재앙의 상징이며 모든 인류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한다. 더욱이 지난 전쟁에서의 온갖 만행들을 부인하며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일본 군인들의 의식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가치는

23) 英格曼神甫趕到少佐前面：“我再警告你一次，這是美國的地盤，你在美國境內開槍殺人，任意抓捕無辜的避難者，後果你想過沒有？”“你知道我們的上級怎樣推卸後果的嗎？他們說：那不過是軍隊中個人的失控之舉，已經對這些人進行軍法懲處了，實際上沒人追究這些‘個人之舉’。明白了嗎，神甫？戰爭中的失控之舉每秒鐘都在發生。”少佐流暢地說完，又由翻譯流暢地翻譯過去。英格曼神甫啞口無言。他知道日軍官方正是這樣抵賴所有罪行的。嚴歌苓 著，위의 책, 175쪽.

이런 죄악을 파헤쳐 과거 역사의 기억을 상기시면서 역사의 진실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4. 하위주체 여성의 억압과 해방

옌저링의 소설은 난징대학살의 생생한 중국 민족의 집단기억이자 정신적 외상(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정신병 환자들의 무의식적 억압 속에는 자신들이 체험한 과거의 어느 한 특정한 부분에 ‘고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는데,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나게 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오는 체험을” 외상적 체험이라고 하였다.²⁴⁾ 난징대학살에 대한 중국인의 기억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들에게 난징대학살은 하나의 감정기억으로서의 상징물이며,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군이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상징하고, 오늘날까지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일본정부와 우익에 대한 중국인의 분노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²⁵⁾ 하지만 중국인에게는 아주 강렬한 민족적 상처의 기억이자 피해자의 의식이 중첩되어 과거의 전쟁 기억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옌저링의 이 소설은 중국의 과거 전쟁에 대한 새로운 기억의 복원이자 피해자의 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유이자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도 등장인물들의 형상으로부터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왜냐하면 전쟁은 국가간의 싸움이지만 결국 그것은 국가에 속한 개개인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나아가서 그것은 한 가족의 운명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작가 옌저링은 가족으로서 ‘나’가 명수취안 이모한테서 전해들은 이

24) 프로이트 지음, 임흥빈 홍혜경 옮김,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9, 372-374쪽.

25) 쉰겨 지음, 류준필 외 옮김, 「중일전쟁-감정과 기억의 구도」,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141쪽.

야기를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전쟁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모든 세대의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진링의 13소녀』는 또 아이리스 장의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난징의 강간, 그 진실의 기록(The Rape of Nanking)』²⁶⁾에 나오는 실존인물인 윤 라베와 월헬미나 보트린을 언급함으로써 작품에 사실적인 색채를 입혀주고 있다. 또한 전쟁의 참상에 대해 폭로할 때는 어김없이 13살 수취안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수취안은 당시 모든 상황의 목격자이자 증인이기 때문이다. 성당에 갇혀 늘 간접적으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던 소녀들은 드디어 일본군이 성당에 침입함으로써 성당 요리사인 ‘조지’의 죽어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엔저링은 또 수천 명의 중국 포로 학살 사건을 다름에 있어서는 포로로 잡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난 군인 리취안유(李奎有)를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시켰다. 1937년 일본군이 난징을 공격할 때 얼마나 파렴치했고 잔악했는지, 또 어떻게 사기극을 계획해서 중국 군대를 이간질하는 동시에 한 부대씩 속여서 투항시켰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작품에서의 핵심 인물들은 자오위모를 비롯한 기녀들과 명수취안을 비롯한 여학생들로서 나약하고 힘없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전쟁에서 타자화되었던 여성들이지만 성당에서의 피신생활을 겪으

26) 아이리스 장(Iris Chang, 張純如)은 1967년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에서 미국국적의 중국인 2세로 출생하였다. 그녀는 어렸을 때 조부모들이 난징 학살사태로부터 가까스로 탈출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났다. 그녀의 논픽션 작품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The Rape of Nanking)』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잔학행위를 폭로하였다. 이 책은 철저한 자료조사와 증언자들의 인터뷰, 자료사진 등을 통해 1937년 난징에서 일어난 대학살과 만행의 참상을 생생히 되살려, 영어로 쓰여진 난징대학살에 대한 훌륭한 첫 번째 보고서로 평가받았다. “그녀는 전세계에 걸쳐 학살의 기록을 찾아다녔는데, 특히 그녀가 주목했던 인물은 당시 난징에서 활약했던 독일인 사업가이자 나치당원이었던 윤 라베였다. 윤 라베는 당시 중국 난민의 영웅이자 살아 있는 부처였다.”(6-9쪽) “그(윤 라베)는 수십만 명의 중국인을 구한 국제안전지대의 지도자였다.”(155쪽) “진링 여자예술과학대학의 교육학부 학장이자 연구 책임자인 월헬미나 보트린은 일본군으로부터 수많은 여성을 보호한 용기뿐 아니라 안네 프랑크처럼 전쟁의 끔찍함을 강인한 정신력으로 증언한 일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된다.”(188쪽) 아이리스 장 지음, 윤지환 옮김,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미다스북스, 2006.

며 부상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며 전쟁의 피해자로서 결국 전범재판의 증언자로 서게 된다. 그리하여 실질적으로 이 소설에서 주체자는 바로 이들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전쟁의 참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억압된 자들이었으며, 군 위안부로서 끌려가 수많은 고통 속에서 죽거나 사회로부터 배제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엔저링은 과거 전쟁의 기억 속에 있는 기녀들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재조명을 통하여 저층서사적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 속에서는 고용인 구씨, 성당의 요리사 천조지, 시체매장원 등 당시 사회의 하층민의 죽음까지도 포착해내며 역사의 피해자와 희생자들로서 등장시키고 있다. 저층서사에서의 ‘저층’은 대체로 서발턴(subaltern)의 번역어에 해당하지만 “농민공에서 도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하층민의 삶의 고통을 다룬 작가들의 작품을 의미할 수 있다.”²⁷⁾ 따라서 이 소설에서의 고통 받고 억압받던 여성들의 세계를 조명하며 당시의 하위계층 사람들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소설은 기녀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의 여성을 등장시키고 있다. 엔저링은 기녀들을 통해 한 시대의 가장 진실된 사회면모를 보여주고자 했다. 난징대학살이라고 하는 무거운 역사 사실을 서술하면서 기녀를 긍정적인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그야말로 엔저링의 용기와 양심에서 나온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양한 묘사를 통해 13명의 생활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성당의 담을 넘어오는 것도 불사하며 신부님에게 정중하게 무릎을 꿇고 생명을 보존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할 줄도 안다. 그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기도 하지만 중국병사들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보다 슬픔과 비통에 잠기기도 한다. 이 세상 모든 여인과 다를 바 없는 감정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그녀들을 비천한 신분의 나라으로 내몬 것은 당시 부조리한 사회와 우매한 성

27) 전형준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인도의 스피박의 서발턴 개념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는 서발턴을 하위계층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므로, ‘저층서사’라는 중국어를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하며 ‘하위계층 서사’가 될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전형준 지음, 『언어 너머의 문학』, 문학과지성사, 2013, 285쪽.

인들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 소설에서 주인공 기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오위모(趙玉墨)에 대한 인물묘사는 매우 남다르다. 그것은 명수취안의 눈에는 자오위모가 천한 기녀에서 자신들을 위해 희생을 자처한 성스러운 여성의 모습으로 비추어졌다. 소설의 시작 첫머리의 전범재판에서 증언자로 나선 자오위모를 알아보며 그녀가 어떻게 고위군관의 대규모 강간을 증언하는지 생생히 들었으며, 소설의 끝부분에서 성노예로 팔린 비천한 여인들이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과정을 드러내며 위안부 생활 속에서 자오위모의 생존을 서술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자오위모에 대한 명수취안의 특별한 감정 속에서 자오위모는 뛰어난 미모와 다양한 재능을 갖춘 명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운명을 걸어간 여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녀도 사서오경을 읽었고 비파, 바둑, 글, 그림에도 능했다. 부모님의 핏줄도 천하지 않았다. 모두 공부도 하고 이치도 아는 분들로 단지 가산을 탕진한 자식일 뿐이었다. 자오위모가 열 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노름판 물주인 당숙에게 저당 잡혔다. 당숙이 죽자 당숙모는 그녀를 유곽에 팔아넘겼다.²⁸⁾

주인공 기녀인 자오위모는 사서오경도 읽고 비파, 바둑, 글, 그림에 능했던 재주 많은 명기였지만 그녀 역시 당숙모에 의해 유곽에 팔려온 가련한 신세였다. 아울러 무도장에서 한때는 진주목걸이를 하고 1930년대 현대파 잡지인 『현대』를 받쳐들며 장스타오(張世祧)라는 교육부 관리 인물을 만났지만 결국 금괴 하나와 50대양을 받고 버림받게 된다. 이를 통해 그녀는 남자에 대한 환상과 환멸을 품게 되었고, 요조숙녀에서 창기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자오위모는 월슨 성당 종루에서 자유로운 바람을 쐬며 다이타오 소령을 만나 눈빛을 주고 받으며 폐허가 된 도시와 골목에서 서로 만나는 상상을 하였다. 그렇게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속에서 다이 소령은 자오위모의 고급

28) 她四書五經也讀過，琴棋書畫都通曉，父母的血脈也不低賤，都是讀書知理之輩，不過都是敗家子罷了。她是十歲被父親抵押給做賭頭堂叔的。堂叔死後，堂嬸把她賣到花船上。嚴歌苓 著，위의 책, 112쪽.

스런 기녀식 환대를 받으며 서로를 기억하기로 한다. 자오위모는 이처럼 두 남자와의 배신과 사랑 속에서 인류의 고통을 위해 대신 수난의 길을 나아간 예수님처럼 학생들을 남게 하고 대신 일본군들을 따라가겠다고 자청한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의 희생하며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며 타인을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을 구원하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 자오위모의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천하건 귀하건 모두 귀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소설 속에는 기녀들과 군인들의 관계를 통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애뜻한 사랑의 감정이 서로 짝트며 서로를 위해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들이 있다. 기녀 더우커우와 중국군 전쟁포로 학살장에서 살아나 부상당해 죽어가는 병사 왕푸성(王浦生)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커우는 상처 입은 어린 왕푸성을 간호하며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입 안으로 술을 넣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하나 남은 비파줄로 사랑 고백을 한다. 나한테 장가들어 집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매일 비파를 연주해 주겠다고 한다.

환풍구를 떠나면서 수취안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뜻밖에도 지하 창고의 여인네들이 그녀의 눈물을 자아내던 것이다!
아마도 죽어가는 왕푸성이 수취안을 슬프게 했을 것이다. 어쩌면 더우커우의 아이 같은 ‘프리포즈’가 수취안의 마음을 아프게 건드렸을지도 모른다. 또 어쩌면 더우커우의 비파 현에서 흐르던 낮은 음조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음조는 장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차이 따는 노래(采茶調)」였다. 이제 장난은 사라지고 한 줄 현에 흐르는 「차이 따는 노래」만 남았다.²⁹⁾

이처럼 더우커우의 왕푸성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소설을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애뜻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비록 비천한 신분의 기녀였을 지라도 죽어가는 왕푸성을 위해 비파줄을 구하러 나갔다가 결국 일본군 병사들에게 잡혀

29) 書娟離開那個透氣孔時，發現自己眼裏也有淚。她居然讓地下倉庫裏的女人們惹出淚來了！可能是垂死的王浦生讓書娟難受。也可能是豆蔻孩子氣的“求婚”勾起了書娟的傷心。還有可能是豆蔻在一個低音琵琶弦上彈出的調門。那調門是江南人人都熟的“采茶調”。現在江南沒了，只剩下一根弦上的“采茶調”。嚴歌苓 著，위의 책，140쪽.

윤간을 당하고 칼에 찔려 죽게 된다. 나중에 발견된 수취안 이모의 진술과 자료 사진 세 장을 토대로 보면 의자에 묶여 고문 당하며 윤간을 당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왕푸성을 생각했던 것이다. 옌저링을 더우커우의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당시 난징에서 일본군이 자행한 일반인들을 향한 살육과 강간의 현장을 고발하고 있다.

기녀 더우커우의 죽음 이야기는 아이리스 장의 논픽션에 첨부된 사진설명(어린 소녀는 의자에 묶인채 반복적으로 강간당했다)과도 일치하는 서술이다. 옌저링은 전반적으로 섬세하고 절제된 언어구사로 난징대학살을 보여주고 있지만 더우커우의 죽음 앞에서는 격양된 감정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1인칭 ‘나’의 서술로서 다음세대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강렬하게 심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1994년 수취안 이모는 더우커우의 또 다른 사진을 찾아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 사진은 투항한 일본 병사의 수첩에서 발견한 것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구식 나무 의자에 묶여 양 다리가 벌려진 채, 다리 사이의 비밀스런 곳이 정면으로 렌즈를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모는 그녀가 바로 더우커우일 거라고 생각했다. 일본 병사들은 이 꽃 같은 소녀를 강간하고 능지처참한 것으로도 모자라, 치욕의 기둥에 영원히 못을 박았다.³⁰⁾

나는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생각했다. 이 얼마나 음침하고 비열한 인간이 저지른 만행이란 말인가. 그들은 다른 민족의 여성을 침범하고 더럽혔지만, 사실 그 민족의 존엄성을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이러한 사진을 전리품으로 삼은 것은 능욕을 당한 민족의 영혼을 깊이 상처 주기 위한 것이다. 나는 그 후로도 자주 생각했다. 이렇게 깊은 영혼의 상처는 몇 세기가 지나야 치유될 수 있을까? 몇 대가 지나야 사람들 뼈속 깊이 아로새겨진 기억들이 희미해질 수 있을까?³¹⁾

30) 在一九九四年，我姨媽書娟找到了豆蔻另一張照片。這張不堪入目的照片，是投向的日本兵筆記本裏發現的。照片中的女子被捆綁在一把老式木椅上，兩腿被撕開，腿間私處正對鏡頭。女子的面孔模糊，大概是她猛烈掙紮而使鏡頭無法聚焦，但我姨媽認為那就是豆蔻。日本兵們對這如花少女不只是施暴和凌遲，還把她釘在永恒的恥辱柱上。嚴歌苓 著，위의 책, 155쪽.

옌저링은 이와 같이 전쟁의 처참한 상황 속에서 역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중국 여성들의 비극적인 인생과 아름다운 희생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 성당으로 피난 온 기녀들이 어린 여학생들에게조차도 천한 대우를 받으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희생 정신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하위계층 여성들이 어떻게 역사의 타자에서 역사의 주체가 되었는지 잘 표현해 주고 있다.

5. 결론

이상으로 옌저링 소설 『진링의 13소녀』에 대한 작품분석을 역사의 기억과 상상, 그리고 소설 속의 주요 하위주체 여성 형상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옌저링은 현재 미국에서 작품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신이민작가이자 디아스포라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1989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석사학위를 마치고 미국인 로렌스와 결혼한 후 다양한 창작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신이민들의 생활을 다룬 소설이나 중국의 난징대학살이나 문화대혁명을 다룬 역사적 제재의 소설을 창작하고 있다. 이러한 소설창작 속에서 중국인 디아스포라 여성 지식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화문문학 또는 화인문학의 주요 작가로 성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옌저링의 『진링의 13소녀』를 통해 중국에서의 난징대학살에 대한 과거 역사의 집단기억과 개인 내면의 외상적 기억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937년 12월 난징대학살 당시의 13세의 어린 여학생 멩수취안의 시각을 통해 자오위모를 비롯한 기녀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투시하며 어린 여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다이 소령 및 중국 군인들의

31) 我看到這張照片時想，這是多麼陰暗下流的人幹的事。他們進犯和辱沒另一個民族的女性，其實奸淫的是那個民族的尊嚴。他們把這樣的照片作為戰利品，是爲了深深刺傷那個被羞辱的民族的心靈。我自此之後常在想，這樣深的心靈傷害，需要幾個世紀來療養？需要多少代人的刻骨銘心的記憶而最終達到淡忘？嚴歌苓 著，위의 책, 155쪽.

희생정신과 미국인 신부로서 당시의 처참한 현장을 고발하고 있는 잉글먼 신부와 이탈리아 출신 혈통의 밥 신부의 이야기를 생동하게 표현해 주고 있다. 특히 난징대학살을 시대적 배경으로 직접적인 학살의 현장을 잔혹하게 묘사하고 있기보다도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성과 속, 희생과 구원, 사랑과 평화 등의 다양한 인간성의 내면세계를 묘사하고 있다. 약 7일간의 이야기를 통해 난징대학살을 다룬 그 어떤 전쟁소설이나 영화보다도 더 리얼하게 표현해하고 있다. 작가의 이와 같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과 개인의 외상적 기억에 대한 상상을 통하여 이에 대한 기억의 문제는 현재를 평화롭게 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과거 역사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하며 새로운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지식인의 자기거울로서의 치유적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하위주체 인물들에 대한 작가의 섬세한 인물묘사를 통하여 타자화 되었던 인물들이 어떻게 시대와 역사의 주체로서 거듭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가장 비루하고 남루한 인생을 살았던 기녀들이 어린 여학생들을 위해 대신 속죄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간 마지막 장면에서의 모습은 너무 헌신적인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잉글먼 신부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녀들이 희생해야만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³²⁾고 말하고 싶었으나, “나의 아이들여,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이를 구원함으로써 한 사람의 인격은 최고의 신성한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희생을 통해서 너희는 가장 신성하고 순결한 여인이 될 것이다.”³³⁾라고 말했다. 잉글먼 신부는 자신의 잔인함을 원망하며 죄책감에 사로 잡혔을 때 자오위모를 비롯한 기녀들이 대신 희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일종의 해방감마저 느꼈다. 이들 기녀들의 희생을 통해 “우린 노예로 팔린 그 비천한 여자들에게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법을 배웠다.”³⁴⁾(번역본 318쪽)고 고백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이와 같이 기녀들의

32) 只能犧牲她們，才能搭救女孩子們。嚴歌苓 著，위의 책，209쪽.

33) 我的孩子們，犧牲自己搭救別人能使一個人的人格達到最神聖的境界。通過犧牲，你們將是最聖潔的女人。嚴歌苓 著，위의 책，209-210쪽.

34) 那對我們是一次大解放，我們從這些被賣為奴的低賤女人身上，學到了解放自己。嚴歌苓

비극적인 운명뿐만 아니라 신부들과 군인들의 희생정신까지도 소설의 주된 서사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 가운데에서 잉글먼 신부와 밥 신부를 통한 동서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과 일본 문화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울러 죽어가는 왕푸성에게 비파를 들려주고 싶어 비파 줄을 구하러 가다 처참하게 살해된 더우커우의 자료 사진, 다이 소령과 자오위모의 애뜻한 장면, 식당 요리사인 천조지의 죽음, 구씨의 죽음 등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일반 하층민들에 대한 죽음을 기억하며 그들의 과거 역사에 대한 증언을 시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엔저링의 이 작품은 난징대학살 당시의 전쟁이 가져온 중국 민족의 집단기억과 개인 내면에 새겨진 외상적 기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으며, 전쟁의 처참함 속에서도 자신들을 희생해 어린 여학생들 구하고자 하는 기녀들과, 군인들, 그리고 신부들의 이타적 행위를 성스럽게 그려주고 있다. 이러한 과거 역사에 대한 새로운 기억과 증언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해방과 평화를 갈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서사방식은 매우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다양한 인물형상과 문화 배경을 토대로 풍부한 상상력을 더하여 전쟁 트라우마, 국가와 민족의 운명,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의미심장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參考文獻

- 嚴歌苓, 『金陵十三釵』, 陝西師範大學出版總社有限公司, 2011.
- 옌거링 저, 김이경 옮김, 『진링의 13소녀』, 문학에디션 뿔, 2012.
-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 살림출판사, 2013.
- 서경식 지음, 김혜신 옮김, 『디아스포라 기행』, 돌베개, 2006.
- 서경식 지음, 한승동 옮김, 『디아스포라의 눈』, 한겨레출판(주), 2012.
- 쑤꺼 지음, 류준필 외 옮김, 『아시아라는 사유공간』, 창비, 2003.
- 스티븐 모튼 지음, 이운경 옮김(2005), 『스피박 넘기』, 도서출판 앨피, 2005.
- 슬라보예 지젝 지음,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1.
- 아이리스 장 저, 윤지환 옮김, 『역사는 힘있는 자가 쓰는가』, 미다스북스, 2006.
- 알라이다 아스만 지음, 변학수·백설자·채연숙 옮김, 『기억의 공간』,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3.
- 임지현·사카이 나오키 지음, 『오만과 편견』, 휴머니스트, 2003.
- 정은경 지음(2007), 『디아스포라 문학』, 이룸, 2007.
- 프로이트 지음, 임홍빈·홍혜경 옮김, 『정신분석강의』, 열린책들, 2009.
- 하랄트 바인리히 지음, 백설자 옮김, 『망각의 강 레테-역사와 문학을 통해 본 망각의 문화사』, 문학동네, 2004.
- 官蘊華, 「撼動“傳統”的手-論嚴歌苓在《金陵十三釵》中的思想潛流」, 『寧波廣播電視大學學報』第11卷 第1期, 2013.1.
- 劉繼蓮, 「嚴歌苓小說《金陵十三釵》中的創傷記憶與創傷“救贖”」, 『太原大學學報』, 2013.3.
- 劉惠麗, 「女性與人性的對話」, 『唐都學刊』第24卷 第4期, 2008.9.
- 萬濤·王勵娟, 「嚴歌苓作品的生態女性主義解讀」, 『新餘學院學報』, 2011.12 .
- 付立峰, 「論嚴歌苓的“母性”敘事」, 『華文文學』總第80期, 2007.3.
- 楊曼·李強, 「嚴歌苓小說中的人性書寫」, 『北方文學』, 2012.3.
- 嚴歌苓, 「悲慘而絢爛的犧牲」, 『人民文學』, 2011.4

- 吳敏, 「跨文化書寫：嚴歌苓新移民小說研究」, 華中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 吳閩閩, 「嚴歌苓：跨文化的審視」, 『牡丹江教育學院學報』3期, 2011.3.
- 王衍, 「論嚴歌苓小說的女性意識」, 南昌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王一波, 「時間之流中的創傷再現」, 『寧夏社會科學』第3期, 2012.3.
- 汪靜, 「嚴歌苓小說的女性自我意識解讀」, 上海交通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 張娜, 「淺析近幾年文學中“嚴歌苓熱”現象的原因」, 『安徽文學』, 第12期, 2010.
- 張敏, 「嚴歌苓筆下的邊緣女性」, 遼寧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 張舒, 「論嚴歌苓小說中的女性主義」, 『佳木斯大學社會科學學報』第30卷 第1期, 2012.2.
- 莊園 編, 『女作家嚴家苓研究』, 汕頭大學出版社, 2006.
- 趙景芝, 「女性主體的漸次生成—論嚴歌苓本土題材小說中的女性形象」, 河南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周春宇·李依雲, 「回望母國的獨特意蘊」, 『寧夏大學學報』, 2011.9.

Abstract

A Study on The Memory of History and The Subaltern in Yan Ge-ling's
『The Flowers Of War』

Park, Nam-yong · Lee, Cheon-ju

This artic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odern chinese history, group memory and the subaltern pays attention in the wok of Yan Ge-ling(嚴歌苓) to show the image of women, as well as reflect the profound humanistic solicitude and feminist perspectives.

In Yan Ge-ling's novel 『The Flowers Of War(金陵十三釵)』, it provides great tension that the contradiction and conflict of humanity are displayed between the background of the Great War and the destiny ups and downs of a group of small characters. Facing the suffering history of the nation, facing the trauma memory and narrative for trauma “salvation” have endowed the novel much thought-provoking connotation.

Yan Ge-ling, as a New emmigrant writer, contiued to focus on the Rape of Nanjing in her work 『The Flowers Of War』. Because of distance of space and time, plus the expansion and deepering of her special view and thinking offered by emmigrant life. Yan Ge-ling deliberately reduced those bloody disclosure of War suffering in her writing about the Rape of Nanjing, yet she paid more attention to the show and analysis of humanity.

As a result of this work is the Nanjing Massacre in China and the nation's collective memory of the traumatic memories of individuals show the inside. These new memories and testimonies about the history of the past through the present and future authors wish to crave liberation and peace is very unique narrative approach can be considered. This means that a variety of artists and cultural background based on character shape in addition to imaginative trauma of war, the fate of the country and the nation, for the life and death of individual consciousness to show meaningfully.

Key words : Yan Ge-ling, The Flowers Of War, The Rape of Nanking, Memory of History, Subaltern

투 고 일 : 2014. 1. 10. / 심 사 일 : 2014. 1. 20. ~ 2014. 2. 10. / 게재확정일 : 2014. 2. 20.